

엘앤케이바이오, 2분기 누적 매출액 206억 원 기록

- ▶ 1분기 지연 실적 반영 및 해외 법인 안정화를 통한 매출 성장
- ▶ 인도 및 유럽시장 진출 등 시장 다변화를 통한 매출 확대 주력 예정

[2018-07-25] 글로벌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(대표이사 강국진·이승주)가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.

회사는 25일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액 206억 원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각각 38억 원, 6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.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2.5% 증가했으며,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수치다.

(2분기 매출액은 129억 원 / 전년 동기 대비 62.45% 증가)

엘앤케이바이오는 이번 실적의 주요 요인으로 ▲1분기 공급 지연됐던 척추 임플란트 수출물량 반영 ▲미국과 호주의 지속적인 성장 ▲신설 해외법인 안정화로 인한 매출 성장을 꼽았다.

회사 관계자는 “전분기 대비 69% 성장하는 등 1분기 공급물량도 함께 반영돼 2분기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”며 “특히, 주요매출국인 미국의 안정적인 판매와 지역 다각화를 통한 외부변수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매출성장에 노력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실제로, 엘앤케이바이오는 2010년 미국 FDA승인을 시작으로 호주, 태국, 캐나다,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으로 척추임플란트 풀 라인업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, 올해 홍콩과 말레이시아 척추 임플란트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자체브랜드를 통한 시장 다변화 및 매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.

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“하반기에 인도 및 유럽 시장 진출을 통해 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 세계 84개국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”이라며 “척추 외에도 무릎관절(Knee Joint)의 라인업 구축과 신제품 런칭 계획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지속적인 매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엘앤케이바이오는 척추 임플란트 수술 트렌드 변화에 따른 최소 침습방식 수술(MIS) 기법을 적용한 척추 임플란트 제품들을 라인업으로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.

<엘앤케이바이오 2Q18 실적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Q18	2Q17	QoQ	YoY
매출액	12,908	7,946	68.65	62.45
영업이익	4,785	(923)	흑자전환	흑자전환
당기순이익	7,126	(883)	흑자전환	흑자전환